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37	<code>\begin{document}</code> 바로 다음에 쓰여야 한다.	<code>\begin{document}</code> 바로 다음에 두어야 (또는 놓아야) 한다.	능동형으로...
p.37	책의 첫장 바로 앞에 쓰여야 한다.	책의 첫 장 바로 앞에 두어야(또는 놓아야) 한다.	“첫 장”으로 띄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능동형으로...
p.37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앞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앞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p.38	문장 뒤에 놓여야 한다.	문장 뒤에 놓아야 한다.	
p.38	쉽표나 마침표 뒤에 놓아야 한다.	쉽표나 마침표 뒤에 놓아야 한다.	
p.38	인쇄물에서는 이탤릭에 의해 강조를 나타낸다.	인쇄물에서는 이탤릭으로 강조를 나타낸다.	“의해”는 번역투 느낌이 들어서...
p.38	\LaTeX 은 강조를 위한 다음의 명령을 지원한다.	\LaTeX 에서는 다음 명령으로 강조를 나타낼 수 있다.	번역투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 명령”으로 해 보았습니다.
p.38	\LaTeX 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LaTeX 에게 무엇인가를	“으로 하여금”은 사역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고쳐보았습니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38	(21번 각주) 각주는 문서의 본문으로부터 독자들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호기심이 많은 존재들이기에 각주는 꼭 읽어본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바라면 모두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각주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 각주를 만나면 독자들은 관심을 문서의 본문에서 각주로 옮긴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모두 호기심이 많은 존재라서 결국 각주를 다 읽을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말하고 싶은 바를 모두 본문에 넣자. 이렇게 하면 독자의 관심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서도 전달하고 싶은 바를 다 전할 수 있으니 더 낫지 않은가?	“으로부터”는 영어식 표현이라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의미전달을 쉽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좀 풀어 써 보았습니다.
p.39	환경은 그 호출 순서만 지켜진다면 중첩되어 사용할 수 있다.	환경은 그 호출 순서만 지켜진다면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	
p.42	좋은 표를 만드는데 쓰인다.	좋은 표를 만드는 데 쓰인다.	
p.42	pos 인자는 주변 텍스트의 기준선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수직 위치를	pos 인자는 주변 텍스트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인 수직 위치를	
p.44	위치 지정자(placement specifier)라고 불리는	위치 지정자(placement specifier)라고 하는	“라고 불리는”보다는 “라고 하는”이 더 우리말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p.45	L ^A T _E X으로 하여금 이 표를	L ^A T _E X에게 이 표를	
p.45	위치 지정자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tbp]가 사용된다.	위치 지정자가 없으면 (또는 위치 지정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tbp]를 사용한다.	
p.46	명령의 인자로 주어진 텍스트는	명령의 인자로 사용한 텍스트는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47	\protect명령은 남발되어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protect명령을 남발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또는 일어나지 않는다.)	
p.54	복잡한 수식에 있어서 지수의	복잡한 수식에서	“에 있어서”는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p.73	그림은 먼저 90도 각도로 회전시키고	그림을 먼저 90도 각도로 회전하고	
p.73	웹 문서들은 HTML언어로 작성된다.	웹 문서들은 HTML언어로 만든다.	
p.73	과학 계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과학 계열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중요한 결점이 두 가지 있다.	
p.80	용지 크기는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용지 크기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
p.81	많은 사람들이 개선의 필요를 느껴온 것은 — 없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개선할 필요를 느껴온 것은 — 없다는 점이였다.	“개선의 필요”보다는 “개선할 필요”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리고 “것”이 반복되어서...
p.87	pdf를 제작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pdf를 제작할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때는”으로 하여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낫게 여겨져서... 그리고 “—를 가지고 있다”는 영어식 표현이라서...
p.88	한글 문서를 pdf제작하는데 있어서 —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한글 문서를 pdf로 만들 때 —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89	그림 처리에 있어서	그림 처리를 할 때 (또는 그림 처리에서) (또는 그림을 처리할 때)	“—에 있어서”가 있어서...
p.93	비록 상당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흔히 쓰이는 원, 타원, 포물선과 같은 것을 2차 베지어 곡선(quadratic Bézier curve)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울 정도로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	수학 계산을 조금 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원, 타원, 포물선과 같은 곡선들은 2차 베지어 곡선(quadratic Bézier curve)를 이용하면 만족스러울 정도로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	
p.93	L ^A T _E X에서 직접 그림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L ^A T _E X에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주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제한적”을 다르게 바꾸고 싶어서 고쳐 보았습니다.
p.93	이에 더해서, 만일 Java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L ^A T _E X 입력 파일의 <code>\qbezier</code> 부분을 만드는데 쓸 수 있다면, <code>picture</code> 환경은 훨씬 강력해 질 것이다.	더욱이,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하여 L ^A T _E X 입력 파일의 <code>\qbezier</code> 부분을 만든다면 <code>picture</code> 환경은 훨씬 강력해 질 것이다.	
p.93	원래의 <code>picture</code> 환경이 가진 — 그림 그리기 기능을 크게 강화시켜 준다.	원래의 <code>picture</code> 환경이 지닌 — 그림 그리기 기능을 더욱 잘 살려 준다.	“가진”이 영어식 표현이고 “시켜”는 사역형이라서...
p.94	첫번째 순서쌍	첫 번째 순서쌍	
p.94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확보하는 구실(또는 기능)을 한다.	“역할”은 일본어에서 온 단어라고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 보았습니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94	앞의 두 패키지는 <code>\picture</code> 환경을 확장시켰을 뿐이지만	앞의 두 패키지는 <code>picture</code> 환경을 확장하였을 뿐이지만	
p.94	두번째 순서쌍	두 번째 순서쌍	
p.95	확보된 사각형 영역의	확보한 사각형 영역의	
p.96	두 값은 서로소(1 말고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여야 한다.	두 값은 서로소(1 말고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이어야 한다.	
p.96	<code>\line</code> 명령은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code>\line</code> 명령에는 인자가 두 개 있는데	
p.96	화살표는 선분보다 방향 벡터 인수가 더 제한적이어서	화살표 명령은 선분 명령보다 방향 벡터 인수에 더 많은 제한을 받아서	“제한적”이 나타내는 바를 쉽게 알 수 없어서 고쳐 보았습니다.
p.96	인수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소여야 한다.	이 때 인수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소이어야 한다.	
p.99	이 명령은 출발점 — 네 가지 인자를 갖는다.	이 명령에는 출발점 — 네 가지 인자가 있다.	
p.99	수직선에만 적용되고 — 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직선에만 적용하고 — 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p.99	수직선(그리고 2차 베지어 곡선)에만 적용된다.	수직선(그리고 2차 베지어 곡선)에만 적용한다.	
p.100	위치 인자 <i>position</i> 은 선택적인데 미리 정의해 둔 박스의 “고정점”을 정의하는 효과를 가진다.	옵션인자인 위치 인자 <i>position</i> 은 미리 정의해 둔 박스의 “고정점”을 정의하는 효과가 있다.	“선택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원문 “The optional <i>position</i> parameter”에서 optional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옵션인자라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101	각 명령은 이전의 것을 대체한다.	?	의미하는 바가 잘 다가오지 않아 원문을 봤지만 자신이 없어 고치지 못했습니다.
p.101	$S = (x, y)$ 는 다음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S = (x, y)$ 는 다음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 (또는 나타난다.)	
p.104	수학 모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수학 모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p.107	상자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	상자를 그리는 구실(또는 기능)을 한다.	
p.108	다음 두 개의 예제는 — 만드는데 도움을	다음 두 예제는 — 만드는데 도움을	
p.111	이 명령은 — 앞 부분에서 사용된다.	이 명령은 — 앞 부분에 사용한다.	
p.111	이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한다.	
p.112	각 표준 문서 클래스에서 이용되는 글꼴 선택	각 표준 문서 클래스에서 이용하는 글꼴 선택	
p.112	중괄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괄호({})는 중요한 구실(또는 기능)을 한다.	
p.114	정의해서 한번에 위험물 예	정의해서 한 번에 위험물 예	
p.120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p.120	이 명령들은 문서의 전체 리부에서 사용된다.	이 명령들은 문서의 전체 리부에 사용한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120	첫번째, 두번째	첫 번째, 두 번째	p.120에 나오는 “첫번째”와 “두번째”는 수정후와 같이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125	<i>LaTeXLocal Guide</i> 라고 불리는 문서를	<i>LaTeXLocal Guide</i> 라는 문서를	
p.126	이 문서는 EPS 파일과 \LaTeX 에서의 그 사용법에 관하여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문서에는 EPS 파일에 관한 내용과 \LaTeX 에서 EPS 파일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 기대보다 훨씬 많이 담겨져 있다.	
그외			“매번”과 “매 번”, “써 넣을”과 “써 넣을”, “해 두고”와 “해 두고”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와 ”하여야”는 어느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좀더”와 “좀 더”는 둘 다 맞다고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둘 다 섞어서 쓰고 있는데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즉”은 “곧”으로, “등”은 “따위”로 바꾸어 쓰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가볍게(?) 읽기도 쉽지가 않군요. 그런데 원문을 보고 번역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번역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